No. 48 2022. 06. 28

Ammi Newsletter

선교사의 글 | 김영애 선교사
암미에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며 | 이준동 목사
나그네를 선대하라 | 주숙일 장로
암미 기도제목
간증1 | Dea. Franil
간증2 | Bro. Charlie
간증3 | Sis. Lucha
암미 선교 소식
후원감사 | 편집부

암미선교회 / 암미다문화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6번길 24 Tel. 031)571-6554, 574-3797
e-mail. gloria3797@hanmail.net www.ammi.or.kr

왜 이주민 선교인가?



김영애 선교사
(Missionary Gloria Kim)

올 해 들어와 지역교회 두 곳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동안 지역교회 선교 헌신예배는 많이 다녔고, 신학교 특강이나 이주민 선교 훈련원 강의는 해봤어도 지역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강의를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런 교회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교회들이기에 특별한 마음으로 갔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반응도 감사하다. 이주민 선교 사역자로서 강의를 듣고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견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지난 5월에 갔던 교회에서 강의가 끝나고 장로 두 분과 차를 함께 나눌 때, 그중 한 장로님도 평소 이 땅에 무슬림들이 많아지는 것이 걱정스러웠는데 강의를 통해 그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 이주민 선교를 부정적으로 보자면 한이 없다. 다문화가정의 예를 들어 보자.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 현상이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일원이 되었기에 더욱 중요한 선교 대상이다. 하지만 이혼율이 높아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우리도 복지정책을 노인복지에서 청년복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이주민 선교를 등한시한다면 자기 민족 중심의 생각에 잡혀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던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요 선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민선교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선교이다.

1. 이주의 시대

먼저 지금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서 이주의 시대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 지진, 적그리스도, 기근, 전염병 등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이제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전염병은 아직도 완전히 꺾이지 않고 변이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비확장이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기근(famine) 문제는 더욱 심각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23개 국가에서는 약 1억 명이 위기 수준 이상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를 포함해 약 400건 가까이 발생한 기후 재난은 분쟁과 코로나로 인한 빈곤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북부 주민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수많은 기후 난민을 낳고 있다. 최근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등 가난한 나라 사람들 6,000명 이상이 미국을 향해 무작정 이민행렬에 오르고 있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예로부터 세계는 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주 현상이 이어져왔고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월드 채널」(World Channel, 2016.12.15) 뉴스레터에 의하면 세계 이주민은 약 2억 3,200만 명이다. 이러한 이주 현상은 세계적으로 1945년 이후에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올림픽 이후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들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다문화가정, 유학생 및 난민 등으로 현재 국내에는 250만 명의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이주민 증가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달 및 최근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의 결과로 국가 간 이동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는 이제 전 지구화(globalization)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 현상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단12:4).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땅위의 교회들이 주변의 타문화권 이주민들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찌기 폴 히버트(Paul G. Hiebert)는 그의 저서 「성육신적 선교 사역」에서 이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자기 종족에만 얽매어 있는 교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도시 교회일수록 외부인들에게 교회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2. 이주민 선교의 특징

다음으로 이주민 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이주민 선교는 나그네 선교이다.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 신구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주민 선교가 선교 현지와 같은 중요한 타문화권 선교라는 점이다. 더구나 현지 선교와 비교할 수 없게 적은 투자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선교이다.

한편 이주민 선교는 다민족 선교(Multi Ethnic Mission) 형태가 많아 현대 선교에서 이미 새로운 형태의 선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민 선교가 다민족 선교 현장이 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에 따른 국제결혼, 결혼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아지게 된 점, 거기에 유학생과 난민의 증가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에서 형성된 다민족 선교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뿐 아니라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무리가 있어 그 결과 서로 다른 민족이 연합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것에 기초한다.

다민족으로 인한 다양성은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에 의한 다양성과도 관계가 있다. 은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은사가 있다면 선교의 은사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누구나 타문화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선교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통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다양성은 또한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과도 연속성을 가진다. 죄로 인해 분리되어 언어 혼잡이 생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그 문화명령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 일환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다민족 선교는 거기에 또 다른 제3, 4의 문화가 창출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회가 이 다양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주민 선교는 전략으로도 중요한 선교이다. 이 세상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30억이나 되고 그들 대부분은 이슬람권 나라들이다. 그런데 그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인 또는 환경문제로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아랍 이슬람권 나라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은 서구나 한국으로 자발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2013년 난민법이 생겼고, 현재 난민으로 허락받은 외국인들이 374명이며 인도적 준난민이 24,000명이다. 7천 명 정도는 난민신청 중이고 11,000명 정도는 심사대기 중이다. 난민 신청을 하면 우선 법적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므로 6개월 정도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난민 대상의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의하면 가난한 환경에 처하여 있는 난민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아주 높다고 한다.

결론으로, 왜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 시대가 이주 현상이 가속화되어가므로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가 여러모로 요긴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 선교의 모판이 되는 지역교회들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고조되길 기도한다.

암미에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며

이준동 목사 (행정, 심방 담당)



세월이 빨라 벌써 암미선교회(이하 암미)에 전임사역자로 부임한지 반년이 흘렀다. 먼저 암미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이곳으로 오기 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목사님과 앞으로의 계획 또는 소망하는 바를 나누는 기회에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피력하였다. 그 때만 해도 알고 있는 정보가 적은 터라,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정도를 떠올리며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를 생각했었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나를 드리기로 서원하셨다는 말을 듣고부터였다. 어린 시절에 겪은 기억 중 하나는 새학년이 되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써낼 때 장래희망란에 선교사라고 썼던 것이다. 아마도 불신자였던 담임선생님은 나를 불러내어 "교사? 선교사? 이것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하며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 장래희망은 우여곡절 끝에 실제가 되어, 그로부터 약 17년 후 아프리카 케냐로 지역교회와 한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배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함께 했던 아프리카 친구들과 교제하며,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사가 어떤 자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신학대학원 재학 중 잠시 휴학을 하고, 남미 칠레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케냐에 있을 때도 비자를 받으려고 출입국관리소를 갔을 때, 외국인 취급을 받아봤지만, 칠레에 있을 때도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몸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 이주민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하셨다. 더욱이 "복음"과 "교회"라는 두 가지 어젠다(Agenda)를 품고서, 이것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필요하며 적용되어야 할 것을 보게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 교회에서의 사

역이 마무리를 지어야 할 즈음, 다음 행보를 놓고 기도하던 중, 신대원 홈페이지 사역게시판을 통해서 보게 된 암미선교회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자격으로는 "선교헌신자", "영어가능자"였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교에 헌신하게 하셨고,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마음에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고,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해온 터였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군 생활을 카투사(KATUSA)로 보내게 하셔서 기본적으로 영어가능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기다림 속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암미선교회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러가버렸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진정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에 대한 질문도 던지며, 은혜로 섬기게 하셨다. 토요기도회에는 격주로 설교하고, 주일에는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소한의 영어인지라 영어설교를 준비하고 또는 통역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잘 적응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부임할 당시와 22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를 지나왔다. 그런 환경이었기에 나의 가족과 암미교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내와 세 자녀 역시 확진되어 격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무증상자들도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증상이 있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암미교회와 가정을 돌보게 하시려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확진되는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암미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서, 마스크를 제외한 방역규제가 완화되어 5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생명의 축제"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기회로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었다. 필리핀, 페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은 행정 업무와 캄보디아 그룹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전에 못 나왔던 사람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캄보디아인들도 나오게 된 것이다. 여기 암미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에 온 것이라고 말한 캄보디아인도 있다.

이렇게 그들을 만나면서,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선교"임을 보게 하셨다. 일부러 캄보디아를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암미에 온 지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게 된다.

나그네를 선대하라

주숙일 장로[1] (CCM 작곡가, 암미선교교회 회계 담당)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받은 수많은 상처가 당신의 관심과 사랑으로 모두 치유되어 더 이상 한국을 미워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성가대 지휘와 찬양 사역에 대한 미련이 떠오를 때면 나는 동두천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나이지리안 형제 지미가 자진 귀국하며 나에게 남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생각하며 미련을 떨쳐버립니다.

사실 나는 성경통독을 많이 했지만 찬양의 의미와 회복 그리고 찬양의 생활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무척 힘썼으나 이 시대 나그네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레19:33-34, 신24:19-22) 그런데 구십년대말 과로로 쓰러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요양을 하던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나그네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주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 그 나그네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이룬 여성들이며 그 숫자가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아울러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기관이나 교회의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해봤더니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몇몇 목회자들이 소수의 봉사자들과 고군분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합법적인 신분이고 또 국가에서 지정한 다문화센터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죽도록 일하고서도 악덕업주의 횡포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그 모습들을 보니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강한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그토록 좋아했던 성가대 지휘와 찬양강의 사역자 직분을 내려놓고 나그네들의 예배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전임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 현장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하며 대부분 허드렛일을 하고 있지요. 초기에는 우리가족 모두가 한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안내와 헌금계수를 하며 그들의 안부와 형편을 살피고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까지 십 수 년 동안 후원교회에서 반찬을 준비해주면 팔십여 명분의 쌀을 씻어 밥을 짓는 밥 담당이었습니다. 종종 방문자들이 내가 쌀 씻는 모습을 보고 왜 지휘하던 손으로 밥을 짓고 있느냐고 묻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생활이 아니겠느냐고 대답합니다. 참, 내 아내는 화장실 청소와 주방관리를 하며 헌금계수를 돕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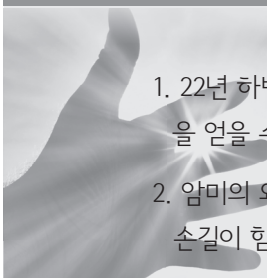
비록 우리 부부의 섬김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나그네들을 향한 사랑과 자기희생이나 인내가 없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주 먼 거리를 다녀야 하고 무엇보다 예배 후에 동년배 교우들과 나누던 달콤한 성도의 교제를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마28:19–20) 우리 모두가 다 해외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곁에 와있는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국이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기회의 땅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한국교회가 부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1) 주숙일 장로는 2005년부터 암미선교회를 섬겨오고 있다. 이 글은 할렐루야교회(분당구 야탑동 소재) 회보 통권 630호에 게재된 글임을 밝힌다.

암미 기도 제목



1. 22년 하반기(7.31-11.30)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한국어 교실이 잘 진행되며 전도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를,
2. 암미의 외국인 지체들의 영적 갱신을 위한 추석수련회(9.9-11)를 계획 중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3. 암미가 지향하는 초교파 협력 선교가 더욱 잘 이루어지기를,
4. 암미 스탭진의 팀사역을 위해
5. 암미가 파송한 사역자들을 위해 (사무엘-브라질, 파블로, 우고, 디아나-페루, 리노-필리핀, 사키-인도)

Testimony 1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Amazing God's providence



Dea. Franil (Philippines) / 프라닐 집사(필리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증할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 수리가오, 디나가트섬에서 온 프라닐 이그솔로입니다. 저는 결혼했고, 세 명의 건강한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계약기간이 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받았는데, 3년 그리고 연장하면 1년 10개월, 총 거의 5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첫 노동계약 만료 후, 회사는 3개월간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볼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암미교회에서 지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기초적인 성경공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표는 3개월의 휴가 뒤에,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First, I thank God for giving me another chance to give my testimony for His glory! I am Franil Igsolo from Dinagat Island, Surigao Sur. I am married and have three healthy children.

My contract here in Korea ended two years ago and I was given a chance to work again for another three years and possible extension of one year and ten months, a total of almost five years in the same company.

After my first contract, the company gave me three months vacation and I was excited to see my family. In my mind, I will make use of the time given to me for my family. Upon arrival in the Philippines, I established our family altar. Every night we sang praise and worshipped God together with my wife and kids. We prayed together and gave thanks to God Almighty. I taught them what I learned here in Ammi through pastor Jimmy, a basic bible study because I wanted them to know God through the bible. My goal after three months vacation is that they will have strong foundation on having devotion to God.

불행하게도 코로나 19가 닥쳤고, 필리핀 국경이 폐쇄되고, 한국행이 막혔습니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없구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용주는 저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형제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매주일, 고향에 있는 지역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당신은 그룹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시며 계속 "당신의 셀리더가 당신을 도울 것이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미에서 배운 것들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성경공부 첫 날에 아이들을 포함해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흥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공부에 대해 그들이 가지는 관심을 보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성경공부 후, 한 멤버는 저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당신은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일이 오자, 담임 목사님이 제게 다시 다가와서 셀그룹을 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셀리더가 다른 셀그룹으로 가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데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Unfortunately, Covid-19 struck and borders of Philippines and South Korea closed. It came to my mind that there was no hope of coming back here in Korea to work again but praise God, I got hope because my employer did not terminate my contract.

In everything there is a purpose. I realized that God did not allow me to come back to Korea because He had another plan for me. To be part of the church here in the Philippines and somehow help brethren to grow.

Every Sunday, we go to a local church in my hometown. One day, the head pastor approached me and said, "can you lead a bible study in your group?" He continued, "don't worry because your cell leader will help you." I said, "yes" because that time what I learned from Ammi was still fresh in my mind.

Friday came, the first day of our Bible study, we gathered around 20 members including children. I saw in them that they were excited and I was so happy because I saw their interest in Bible study. After our session, our members approached me and said, "you should be a pastor!"

Sunday came and my head pastor approached me again and asked me to handle the cell group because our cell leader had to transfer to another cell group. I accepted the challenge because I had joy in teaching them.

코로나 봉쇄조치가 우리가 사는 곳에도 이루어졌고, 50%의 사람들만 교회에 모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오전에, 다른 하나는 오후에 모였습니다. 좋은 것은 오후 예배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봉쇄조치 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이나 나눌 수가 있었는데, 제게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쓰셨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5-7번 정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에도 한 번 초청을 받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게 주신 기회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2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을 형제들과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의 부분임을 압니다.(엡 2:10)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자 아이를 새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까지 여전히 계속되는 새로운 사업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사업으로 번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했습니다. 그 사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으로 다시 오기 전, 셀그룹의 멤버들이 저의 집에 와서 좋은 식사를 준비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그들에게 복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멤버들과 제 가족이 무척 그립지만, 주님의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립니다.

Lockdown came in our place and only 50% of members were allowed to gather in the church. So we divided the church meeting into two, one in the morning and one in the afternoon. The good thing is that I was given the privilege to preach in the afternoon service. And after lockdown, I was able to share the Word of God two times which was a very blessed time for me!

God continued to use me and we had prayer meetings every Wednesday where I was given a chance also to share the word of God maybe 5-7 times. Not only to my local church but I was invited also to another local church one time. And I thanked God for the privilege that He gave me for His glory, the God who saved me from eternal damnation. Obviously, the reason why He allowed me to stay in the Philippines for two years is to share to the brethren what I learned here in Korea! I know this was part of the good works God prepared for me before the creation of this world (Eph. 2:10).

Not only that, I was thankful to God because He gave us another baby boy! He gave us a new business in which it is still going on until these days. The good thing is that I influenced my wife to give tithes of everything she earned from the business. The business is growing!

Before I came back here, my members in cell group came to my house and served us good meals as a gesture of their thanksgiving to God for using me to bless them, I miss them so much and my family but I know in His time we can meet again. Thank you Lord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e privilege to serve in your vineyard!

Testimony
2

나를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my Shepherd!



Bro. Charlie (Philippines) / 찰리 형제 (필리핀)

저는 필리핀, 민다니오, 제너럴산토스시에서 온 찰리입니다. 저는 2020년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게 된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알기 전, 암미교회의 전 성도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나드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그는 항상 암미 교회에 같이 가자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절했습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성경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I am Charlie from General Santos City, Mindanao, Philippines. I was converted to Christ in year 2020.

My conversion to Christ was not easy. Before I had known Jesus as my Lord and savior, I had a friend who happened to be a former member of Ammi Church. His name was Bernard. Every Saturday and Sunday, he always invited me to go with him to Ammi Church but I always refused. I told him that I was always busy but the truth was I wasn't. I always stayed in my room and played online games for the whole day; every Saturday and Sunday. I didn't have time for God. I didn't have time for the Bible. I didn't want to go to church.

어느 날, 문제를 만났습니다. 부모님 모두 아프셨습니다. 아버지는 척수에 결핵이 있었고,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고통 중에 계시다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쓰셔서 저를 친구 버나드를 따라 교회를 가기로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버나드는 지미 목사님에게 저의 문제에 대해 나누었고, 목사님은 필리핀 형제들과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평안을 느꼈습니다. 지미 목사님은 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One day, I encountered problem; both of my parents were sick. My father had tuberculosis in his spinal cord and my mother had heart disease. It was so painful for me that my parents were suffering. God used the circumstances where I decided to go to church with my friend, Bernard. Bernard told pastor Jimmy about my problems and he prayed together with Filipino brethren for me. I was comforted that time. Pastor Jimmy led me to accept Jesus as my Lord and personal savior. I felt shameful because I only seeked God when I had problems.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한 달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에 갈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My mother passed away and after one month of her passing, my father passed away, too! I felt very painful and heavy inside my heart because I lost my parents in short span of time and I wasn't able to attend their funeral service because it was during Covid. However, the pain did not last long because I have met Jesus and I am in Christ.

지미 목사님은 저에게 일대일 성경공부로 다가오셨는데, 첫 성경공부 모임을 공장 밖에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공장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회심하게 되었고, 지금 교회에서 드러머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심할 때, 우리는 공장 안에서 조차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의 공장으로 가서 계속 성경공부모임을 가졌습니다.

Pastor Jimmy approached me to have one on one Bible study and I remembered we had our first bible study outside "gageh" or store. Then later on, we started Bible study in our company together with other friends. One of my friends was also converted to Christ and now he is our drummer in the church. Then when Covid – 19 struck, we were not allowed to meet inside the company so we decided to meet outside. We went to other company and continued our meeting.

어느 날, 암미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암미교회는 찬양팀을 초대했고, 그들은 찬양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었던 축복받은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악기들 중에 베이스 기타에 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했

One day, there was a festival celebration in Ammi. The church invited a musical band(praise team) and ministered to the people. I was one of the blessed ones there. Of all the musical instruments, I was attracted to bass guitar. I thought to myself how I can learn to play the

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미 목사님은 연주 방법을 알고 계셨고, 저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베이스 기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예배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원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진실로 성경은 진실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엡 3:20)

instrument. By God's grace, pastor Jimmy knew how to play so he taught me. I diligently studied bass guitar. Now, I am regularly playing bass guitar during Saturday and Sundays worship service. Thanks be to God! He honored my desires! Truly, the Bible is true and I quote,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Eph.3:20).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필요한 돈과 저의 장래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암미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아프거나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God brought me to Korea for a purpose. I thought at first that it was all about money to support my family in the Philippines and for my personal futu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Christ and I found Him here through the ministry of AMMI Church. He blessed me financially and spiritually! I am also thankful to God for the health he gave me. In four years, I have never been sick nor hospitalized! It is all by the Grace of God!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친절한 목사님(지미 마반) 을 주셨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저를 이끌어주시는 저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서 지도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가는 것은 저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Even though my parents passed away, God gave me a very kind pastor (Pastor Jimmy Maban) as my spiritual father who guided me in many ways. He gives a lot of guidance in serving God, in understanding the Bible, in playing instruments and in leading worship. I have more desire and thirst to know God and his Words. Going to church before was not my lifestyle but now, it became part of my life. I love worshipping God!

또한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암미교회와 글로리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최고의 소망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과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Also, I am thankful of AMMI church through the leadership of Pastor Gloria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serve God through music ministry. My utmost desire is to serve Him through music and to lead God's people into praise and worship.

Testimony
3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Jesus vino a mi !



Sis. Lucha (Peru) / 루차 자매 (페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온 35살 루차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오늘 날 나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고 신앙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오빠의 죽음, 잘못된 결정들, 이혼의 무게는 점점 더 나의 삶을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계속 잘 못 된 결정들을 하며 살다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되어 미혼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Hola hermanos y hermanas en Cristo.
Mi nombre es Lucha, tengo 35 años y soy de Perú.

Quería compartirles mi testimonio acerca de como conocí a Jesús y cómo es mi vida hoy en día.

Antes de venir a Corea del Sur ya había conocido de Jesús y la vida cristiana. Sin embargo me alejé y empecé a vivir una vida a mi manera por diferentes motivos que humanamente en ese momento me parecían correctos. Después de tomar malas decisiones y luego de la muerte de mi hermano y mi divorcio, mi vida empezó a ir cuesta abajo. Vivía una vida egoísta e irresponsable sin tener en cuenta siquiera que estaba hiriendo a las personas que estaban a mi alrededor. Pero como seguía tomando malas decisiones en mi vida me quedé embarazada y me tocó asumir la maternidad sola.

그제서야 비로소 멀리 떠났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으셨고, 그 분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갈급함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구하기 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분노하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모두 다 그분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와 성격을 주체할 수 없는 것과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의 반응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글로리아 목사님의 멘토링과 여러 친구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본래부터 죄인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 때서야 정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었고, 힘든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기 보다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음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또한 한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씨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에 관한 일로 인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 모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평안을 주셨고 마음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매일 주님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거나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 되

Y es aquí como empieza nuevamente mi vida junto a Jesús, aquel Jesús que ya había conocido pero que había dejado. Dios siempre me estuvo buscando y deseando que regresara a sus caminos. Por la enorme necesidad de mi corazón, volví a asistir a la iglesia. Pero lejos de buscar refugio en la presencia de Dios empecé a experimentar mucho dolor y un resentimiento hacia Dios porque decía que me había castigado porque no entendía el porqué seguía sufriendo diariamente si Dios me había ya perdonado. Culpaba a Dios de que no era justo que haya permitido que pasen cosas malas a mi familia.

Tuve problema emocionales y problemas para controlar mi carácter, así como problemas con mis reacciones ante situaciones difíciles. Con el tiempo y con la ayuda y guía de mi pastora Gloria y amigos cristianos que no dejaron de orar por mí, Dios mismo empezó a responder mis dudas y me mostró mi naturaleza pecaminosa. Fue entonces que en vez de clamar por justicia, clamé por misericordia, y en vez de quejarme por la vida dura que vivía, cambié mi oración y le pedí a Dios que ande conmigo y me ayude a pasar todas las dificultades junto a Él.

Créanme. Jamás he sido abandonada por Dios y realmente el saber esto muchas veces quebranta mi corazón porque recibo una gracia inmerecida e inagotable. Y en su infinito amor Jesucristo me ha colmado de bendiciones que jamás tendría si no fuera porque es Él quien abre las puertas para bendecirme. No puedo decir que no tengo luchas diarias y muchas veces estoy agotada porque estoy lidiando y batallando diariamente por la sanidad de uno de mis hijos. Sin embargo, el Señor Jesús me ha permitido pasar cualquier dificultad en paz, con calma en mi corazón, y eso es posible gracias al tiempo de oración y comunión que tengo con Él.

Muchas veces he escuchado que no tenemos derecho a

다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글로리아 목사님과 암미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메시지들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상한 교리가 아닌 그저 성경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암미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홀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나 훗날에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랐는지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주님과 더 가까이 살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페루에서 장애인 보호 시설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quejarnos o renegar de Dios, y es verdad. Dios es justo y es fiel. Sin embargo, creo que es bueno rendir nuestro corazón delante de Dios y orar en secreto y derramar el corazón en su presencia y tener la confianza de decirle a Dios lo que tenemos en el corazón para que así Dios pueda escucharte y ayudarte, porque aunque sabe todas nuestras necesidades es necesario que nosotros se lo digamos.

Y por otra parte me gustaría agradecer de una manera especial a la pastora Gloria y a todos los que sirven en la iglesia AMMI por predicar y hablar de Dios conforme a lo que está escrito en la Biblia, sin falsas doctrinas y basados únicamente en la palabra de Dios. Y es una de las cosas que me ha hecho amar más a mi iglesia AMMI porque entiendo que antes mi conocimiento de Dios estaba contaminado por la predicación secular. Doy gracias a Dios por permitirme llegar a un lugar en donde se predica conforme a la voluntad de Dios

Aunque hoy estoy en medio de luchas y dificultades y muchas veces viviendo solo sostenida por gracia me gustaría en el futuro contar acerca de los milagros de Dios y acerca de mi vida espiritual ha crecido, porque mi meta principal es esa, el estar más cerca a la presencia de Dios y servir en su ministerio ayudando a los que necesitan de Dios. Y otro de mis sueños es abrir varios centros de terapias para personas con discapacidad en Perú y de esta manera ayudar a los más necesitados y también llevar la palabra de Dios a través de Él.

Y una cosa más. Me gustaría volver a decir que reconozco a Jesús como mi Señor y mi Salvador personal, que murió en la cruz para salvarme de mis pecados, resucitó y que volverá así como dice Su palabra. Que Dios los bendiga hermanos y hermanas.

암미 선교 소식
(2022. 1. - 2022. 6.)

Ammi
Mission News



대한여약사회 방문

1.20.

지난해에 이어 한국여약사회 회장단 2 명의 방문이 있어 생리티슈와 프로바이오틱스, 감기약, 마스크 등을 기증받았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움츠려있는 외국인들에게 건강의 돌봄을 받게 된 좋은 선물이 되었다.





구정 일일수련회

1.30.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Be a Christian Soldier!)"라는 주제로 구정 기간에 일일수련회를 가졌다(강사: 김영애 선교사).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서도록 TIA 태권도 선교팀이 방문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참석인원 41명).







부활절 세례식

4.17.

부활절에 찰리와 잔델 필리핀 두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학습을 받은 이들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찬양반주를 위한 악기(기타, 드럼)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토요기도회와 주일예배를 신실하게 참여하여 믿음을 키워왔다.



성경퀴즈 대회

4.24.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외국인 지체들이 함께 읽어왔다. 그 동안 읽고,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성경퀴즈대회를 은혜롭게 가졌다.



이주민선교 강의

5.24.

김영애 선교사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새음교회(이문장 목사) 시니어아카데미에 강사로 초청되어 "다문화 다민족 선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강의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선교적 기회로 바라보는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생명의 축제

5.29.

코로나 상황으로 2년간 갖지 못했던 생명의 축제를 3년 만에 가졌다. 강사 문성주 목사는 "하나님의 초대(God's invitation)"라는 주제로 믿음이 약해졌거나 처음 초청되어 나온 이주민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 후에는 신봉수 목사의 건강교실(실내 운동)이 있었다. (참석인원 70명)



소망교회 의약품 전달

5.29.

매해 암미에 종합 의료 진료를 제공해 주는 소망교회 의료진료팀이 방문하여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약품, 코로나 진단키트, 파스, 진통제, 감기약 등을 전달해 주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2022. 1. 1. ~ 2022. 6. 25 |

단 체

가나안교회, 경동제일교회, 내곡교회, 늘푸른진건교회, 다일교회, 대전대일장로교회, 대전생명의빛교회, 두란노교회, 맑은샘교회, 밀알두레학교, 벧엘교회, 보성교회 제2여전도회, 분당사랑교회, 사랑의교회, 새암교회, 서암순복음교회, 성광교회, 성약교회, 에스케이지피선교회, 예수길벗교회, 예수찬양전도선교회, 은성교회, 은천교회, 장현썸머힐어린이집, 천성교회, 퇴계원제일교회, 푸른초장교회, 할렐루야교회, 화평교회

개 인

LETICIADEL, 강완순, 고순란, 권인순, 김경숙, 김관상, 김금숙, 김금애, 김금자, 김미림, 김숙원, 김순자(김기중), 김양자, 김영숙, 김영호, 김옥순, 김완겸, 김정란, 김정숙, 김정재, 김진선, 김화선, 박가영, 박상록, 박수선, 박은경, 박주상, 방예린, 방예율, 백영희, 성범규(조아정), 신화영, 양명선, 유형호, 윤동연, 이민철, 이복현, 이은현, 이재숙, 이정자, 이청심, 임규옥, 임무빈, 임선옥, 장미순, 정은숙, 최옥주, 최향신, 최헌주, 탁진희(박찬영), 하인희, 한봉숙, 홍성모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 : 2022. 1. 1. ~ 2022. 6. 25.

■식사봉사 (간식제공)

가나안교회, 다일교회, 두란노교회, 사랑의교회팀, 새암교회, 예수길벗교회, 은성교회, 푸른초장교회, 박상록, 탁진희

■구제, 선물 및 기증

가나안교회 (반계탕), 김경숙 (그릇, 주방기구), 김명숙 (배즙), 김명혁 목사 (빵, 초콜릿), 대한여약사회 (의약품, 살충제), 방가희 (의류), 소망교회 의료선교회 (의약품), 예수길벗교회 (의류), 장현썸머힐어린이집 (반계탕), 포항봉계교회 (생리대)

■선교회를 방문해주신 분들

경동제일교회, 대한여약사회, 밀알두레학교, 성석교회, 소망교회, 예수길벗교회

암미선교회 후원구좌

국민은행 838-21-0141-221 예금주:김영애 (암미선교회)
농 협 204051-51-055753 예금주:김영애
우 체 국 013797-02-014-361 예금주:김영애

※송금 후 확인전화를 꼭 주세요! 주소확인이 필요합니다.

AMMI MINISTRIES
for Foreign Workers!

- English & Korean Worship Service (Sun 11:00 am) 영어/한국어예배(주일 오전 11시)
- KIIP Korean Class (Sun 1:30-7:00 pm)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실(일요일 오후 1시반-7시)
- Counseling 상담
- Medical Clinic (Every 2nd Sun 1:30-4:00 pm) 의료진료(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반-4시)
- Haircut Service (Every 1st, 3rd Sun 12:30-1:30 pm) 이미용서비스(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2시반-1시반)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John 10:27

발행인 조말수
편집위원 김영애 이준동
김혜성 이강녀 Jimmy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6번길 24
전화 031)571-6554
031)574-3797
010-5390-3797
팩스 031)571-6521
이메일 gloria3797@hanmail.net
홈페이지 www.ammi.or.kr

(사) 암미선교회 조직
자문위원 김명혁 김희수
이사장 조말수
대표 김영애
운영위원회 김병식 권중헌 김응렬
임재용 김 영

'암미'는 히브리어로 "내 백성"(호 2:1)이라는 뜻으로 이 땅에 온 외국인 나그네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mmi' means "My people" in Hebrew and it expresses the Lord's mind calling for also foreign strangers here.



디자인 꿈마을예닮
02)529-4003

Ammi Mission Church
031)574-3797, 571-6554
010-5390-3797